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6일

CUOMO 주지사, 올해의 주 방위군 병사로 선정된 뉴욕주 공군 방위군 병사를 축하

Long Island의 하사가 470,000 명의 미국 육군 및 공군 주방위군 병사 중에서 선정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어젯 밤 워싱턴 DC에서의 연례 경축 행사에서 USO에 의해 올해의 주 방위군 병사로 표창된 뉴욕주 공군 방위군의 Christopher Petersen 하사를 오늘 축하하였습니다. Long Island의 Commack 출신인 Petersen은 제106 구조비행단의 제103 구조 비행 중대의 정식 대원입니다. 그는 USO에 의해 표창된 6명의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41년 이래 전세계의 미국 군대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USO로부터의 올해의 주 방위군 병사 표창은 큰 영예입니다.

“본인은 USO로부터 올해의 주 방위군 병사로 표창 받은 Christopher Petersen 하사에게 모든 뉴욕거들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에 그는 적의 포화 속에서도 동료 미국인 3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사선에 놓았습니다. 그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온전히 있으며 뉴욕주를 진정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USO 같은 기관이 그를 선정한 것은 또한 뉴욕주 방위군 전원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우리 주와 나라를 위한 그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Petersen은 또한 Westhampton Beach 소재 F.S. Gabreski 주방위 공군 기지에서의 12월 기념식 동안에 동성 무공 훈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주 공군 방위군의 제106 구조비행단의 다른 5명 대원들과 함께 받을 이 상은 2012년 12월 10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의료 후송 임무시 포화 속에서 Petersen의 영웅적 행동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하사 Petersen은 4명의 군인(미국인 3명과 아프가니스탄인 1명)이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인근에서의 매복 공격으로 심하게 부상 당했을 때 대응한 6명의 뉴욕주 공군 방위군 낙하산 구조 대원 중 1명이었습니다. Petersen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적의 화기에 자신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였고 다가오는 불길로부터 부상자들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etersen은 힘든 낙하산 구조 훈련시에 여러 번 수훈을 세웠고 그의 직업 군인 정신과 임무에 대한 헌신 때문에 본인의 부대, 제106 구조비행단 및 뉴욕주 방위 공군에 의해 올해의 공군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Korean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Petersen은 말했습니다. “똑같이 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Petersen은 2003년에 Commack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Notre Dame 대학교를 2007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Ernst & Young에 재무 분석가로 입사하였지만 2008년 8월에 퇴사하여 주방위 공군에 낙하산 구조 대원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수호천사로 알려진 낙하산 구조 대원들은 낙하산으로 또는 헬리콥터에서 하강하여 바다나 육지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은 소부대 전술, 화기, 작은 보트 작전, 스쿠바 다이빙, 고고도 낙하 및 모든 종류의 구조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훈련을 받으며 생존 기술 및 육상 전투 기량도 숙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Petersen 같은 주방위 공군 낙하산 구조 대원들은 포화 속에서 의료 후송 임무를 수행하도록 종종 호출됩니다.

텍사스주 Lackland 공군기지에서 공군 기초 군사 훈련을 이수한 후에 그는 낙하산 구조 훈련 “파이프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육군공수학교, 육군자유낙하학교, 공군 전투 다이버 훈련, 공군 비상 의료 기사 훈련 및 공군생존학교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항공기를 나가는 해군 훈련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는 2011년 1월에 힘든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낙하산 구조 학교에 있을 때 그는 최우수 학업 성적으로 Charles D. King 상, Purple Heart Association 상 및 우수한 의료 성적으로 Jason D. Cunningham 상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 Petersen 하사의 용맹성 때문에 세 명의 군인이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전우 3명이 친구 및 가족과 더 많은 특별한 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USO의 전무 겸 참모장인 John I. Pray, Jr가 말했습니다. “USO가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여 Petersen 하사의 사심 없는 봉사와 영웅적 행동에 감사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두 번 배치되어 있는 동안 Petersen은 85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Petersen은 낙하산 구조 대원으로서 같고 닦은 군사 기량을 발전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주방위 공군의 정규 대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시에 입대했기 때문에 제가 피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조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고향의 가족과 친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Petersen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활동적이어서 미국 보이스카우트, Wounded Warrior 프로젝트, “That Others May Live” 재단 및 미국암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